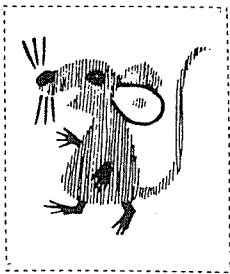


1984年 世界石油情勢 展望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지난 해 OPEC(石油輸出國機構) 史上 처음으로 기준원유가격이 인하되었다. 현재 세계석유정세는 小康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수요의 감퇴와 産油國의 증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原油가격인하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라크戰爭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선언과 레비논, 쿠웨이트에서의 폭탄테러 사건등에서 나타난 中東정세의 긴박화는 국제석유정세의 장래를 점차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세계의 石油소비는 제2차 석유위기 이후 4년 계속하여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82년의 4천5백40만 B/D에서 4천4백30만B/D로 2.4%나 감소했다. 그 결과 79년 이후의 석유소비감소는 하루 7백30만배럴로 14%의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다. 석유소비감소경향을 보면, 제2차 석유위기 직후인 80년 5% 감소, 81년 4% 감소, 82년 3% 감소, 83년 2.4% 감소로 점차 감소폭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3/4분기 이후부터는 특히 감소폭의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美國의 石油소비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4년만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美國 이외의 선진국을 보면, 이 기간중 日本이 석유소비가 2.1% 증가한 이외에는 英國이 보합세,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가 4~6% 감소했다. 美國 이외에는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달러貨 강세에 따른 원유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랑, 마르크 등 輸入國통화 배이스의 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석유위기 후에도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가 82년의 1천2백40만 B/D를 고비로 작년前半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南美, 아프리카제국이 不況과 누적채무증가로 석유수입을 억제한데다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産油國에서 석유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제품가격을 대폭 인상한데에도 一因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경제성장률이 높은 韓國, 필리핀 등 아시아諸國에서는 석유수요가 다소 증가했다.

작년 10월에는 美國, 日本 외에 西獨, 이탈리아도 석유수요가 증가, 자유세계의 석유수요 감소 현상은 일단 멈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기별로 본 석유수요는 전년동기대비로 1/4분기의 7% 감소에서 2/4분기 5% 감소, 3/4분기 2%감소로 감

소폭이 낮아지다가 4/4분기에는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PEC의 원유생산은 석유수요감소와 급격한 石油재고감소로 79년의 3천1백만B/D에서 작년 1/4분기에는 1천5백20만B/D로 51%나 감소했다.

작년 3월의 原油가격인하 이후는 OPEC의 원유생산도 점차 회복되어 3/4분기 이후에는 1천8백만 B/D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석유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석유재고의 방출이 감소, 3/4분기에는 2백만 B/D의 재고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原油생산회복과 함께 원유가격도 예상 이상으로 堅調勢를 보이고 있다. 기준원유의 現物價格은 3월의 배럴당 28달러에서 점차 상승, 9월까지 29달러의 공식가격을 상회했다. 그 후 OPEC, 非OPEC의 증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져 28달러 수준에 있다. 현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소련, 멕시코, 美國産 원유, 일부 北海産 원유의 공식가격이 6월부터 10월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

OPEC原油의 加重平均價格도 작년 1월의 배럴당 31.1달러에서 가격인하 이후인 4월에는 28.2달러로 떨어졌다가 10월에는 28.6달러로 약간 상승했다.

原油가격이 3월의 원유가격인하 직후에 더 떨어지리라는 대부분의 예상과는 반대로 堅調勢를 보인 것은 첫째 자유세계의 석유수요가 작년을 밀바닥으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오래동안 계속된 在庫소비가 끝나 3/4분기에 2백만B/D의 재고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9~10월에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봉쇄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中東정세의 긴박화가 석유재고의 증가

를 촉진시켜 원유공급과잉에 의한 軟化를 방지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가격 再引下의 우려가 사라진 작년 여름 이후가 되자 OPEC, 非OPEC의 원유증산으로 작년 가을부터 다시 공급과잉이 되어 원유가격 인하압력이 높아졌다. OPEC 원유생산은 9월에는 1년만에 1천9백만B/D를 넘어섰고, 또 非OPEC의 北海는 史上 처음으로 3백만B/D線을 넘어섰다. 北海의 증산은 新油田의 생산개시에 따른 결과인데 OPEC 제국은 3월의 런던總회에서 설정된 國別生産쿼터를 이라크, 카타르 이외에는 대부분 초과 증산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한때는 크게 우려되던 中東정세의 긴박화, 특히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능성이 회박해지면서 비상시대책으로서의 석유재고의 증가가 주춤해져 산유국의 증산에 따른 공급과잉이 또 다시 顯在化했다. 12월에는 기준원유의 現物價格은 배럴당 28.2달러로 공식가격보다 80센트나 밀돌았고, 北海의 브렌트原油는 배럴당286달러로 공식가격보다 1달러40센트나 떨어졌다. 동시에 美國원유(西텍사스 良質油)의 가격도 배럴당 29.3달러로 공식가격(30달러)을 하회했다. 작년초 가격인하의 단서가 되었던 소련이 우랄産 원유의 공식가격을 2차례에 걸쳐 배럴당 29.5달러에서 28.6달러로 인하, 원유가격인하가 또 다시 공식가격에 과급되기도 했다.

OPEC는 원유의 공급과잉과 원유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제네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OPEC 원유생산 上限인 1천7백50만배럴과 기준원유가격의 유지를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조정역할을 둘러싸고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OPEC 각국은 런던總회에서 결

原油需給展望

(單位：万B/D)

	82	83	84	1 / 4	2 / 4	3 / 4	4 / 4
需 要	4,620	4,510	4,590	4,720	4,440	4,430	4,750
• O E C D	3,430	3,470	3,390	3,520	3,240	3,230	3,550
• 其 他	1,190	1,160	1,200	1,200	1,200	1,200	1,200
供 給	4,380	4,340	4,590	4,520	4,440	4,630	4,750
• O P E C	1,844	1,730	1,920	1,880	1,770	1,940	2,070
• 非OPEC	1,989	2,060	2,130	2,100	2,130	2,150	2,140
在 庫 變 動	- 240	- 215	0	- 200	0	200	0

<資料> NRI, 83. 11

정된 國別생산쿼터를 보다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① 예년보다 추운 겨울날씨, ② 美國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할 경우, 5년만에 다시 상승세로 反轉할 가능성이 크다.

금년의 석유수요는 대체로 2%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셀은 1.1%, 텍사코 2.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6%, 美國에너지省 3% 증가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세계의 석유수요가 5년만에 다시 상승세로 反轉될 경우, 현재 배럴당 29달러의 기준원유가격이 금년중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금년 봄에 공급과잉으로 기준원유가격이 인하되리라는 견해도 일부 있으나, 이것은 現物價格의 하락, 소련, 美國원유의 가격인하등이 작년의 5달러 가격인하 前의 정세와 흡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작년과 금년의 국제석유정세의 기조는 상당히 다르다.

첫째로 올해는 석유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는데다가 OPEC 원유생산도 작년보다 1백만B/D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자유세계의 석유재고는 작년의 45억배럴에 대해 현재는 43억배럴로 상

당히 낮은 수준이며 작년초와 같은 대폭적인 재고 소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작년은 소련의 가격인하에 追隨했던 非OPEC의 北海, 멕시코, 이집트 등이 현재는 원유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특히 北海원유가격인하는 나이지리아의 追隨인하를 가져와 OPEC의 기준원유가격인하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英國石油公社는 이번 1/4분기에 北海産 원유가격의 동결을 제시하고 국제석유자본인 셀, BP 등이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원유가격인하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준원유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경기회복이 예상이상으로 늦어지거나 난동으로 석유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작년과 같이 비수요기에 들어가기 전에 석유재고가 대폭 소비되는 경우일 것이다. 불투명한 세계경제나 국제석유정세의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이같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現狀으로 판단한다면 기준원유가격이 금년중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의 국제석유정세는 공급과잉의 基調가 변화하지 않은 채 세계경기와 中東정세의 격변 등 국제정세에 돌발적인 展開가 없는 한, 석유수급과 가격은 불안정하지만 小康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油 價 展 望

(單位: \$/Bbl)

	83		84		
	DRI	WEFA	DRI	NRI ¹⁾	WEFA
OPEC 平均公示價 (增加率)	29.25 (-12.5)	29.89 (-12.4)	29.25 (0.0)	28.50 (0.0)	30.35 (1.5)

註: 1) 83.4/4 分期 公示價對比

(資料) DRI, 83. 11, NRI, 83. 11, WEFA, 83. 10

부정·부패·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